

# 비구조적 발달 미술치료를 통한 발달장애아의 자아의식 향상 효과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 Self-consciousness Improvement Effect of Nonstructured Developmental Art Therapy on a Developmental Disordered Child

-A Study on the Single Case-

강영자 · 강승아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아동벤처산업학전공

Kang, Young Ja · Kang, Soung A

Dept.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Daejeon Univ.

### Abstract

This study is a non-structured developmental art-therapy case study having done 134 times of total treatments for a 12 years old girl, having extremely poor verbal communication ability and sociality comparing to her ability in perception and motion. I presumed the cause of this gap between perceptibility and the communication ability was a problem related to self-consciousness. To cure the problem, I provided treatment programs designed to use material which can create a stable and reliable environment and can give body experiences such as painting and play-dough. As the treatment programs progressed, I found she had changed gradually to lead the game by herself and to express her favorite colors and shapes. Also she became to be able to express her experience as a simple word and to response short answers for questions.

**Key words** : nonstructured developmental art therapy, self-consciousnes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의 전반적 혹은 부분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들 중 다른 발달에 비해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아동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발달장애나 자폐 등의 특수

아쁜 아니라 현재 일반 유아에게도 나타나는데 너무나 때 이른 인지위주의 조기교육으로 인해 0세~3세 사이에 이루어져야하는 자연스러운 통합적 발달의 균형이 깨져버려 3세 이전의 정서장애를 호소하는 유아들이 그 한 예가 된다. 학년기 아동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흔히 정서장애라 하고 특별한 아동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언어능력이 떨어지거나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아동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이면 장애의 한 특성으로만 생각할 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히 언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인지교육을 증점적으로 제공한다.

Corresponding author : Kang, Young Ja

Tel : (042) 280-2453 Fax : (042) 280-2452

E-mail : kang@dju.ac.kr

여기에 대해 본 연구자는 아동의 '자아의식' 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자아의식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시간이나 장소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이러한 자아의식은 출생 순간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아가 성숙하면서 자신의 몸에 접촉을 통한 경험을 조직화하면서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데 이 자아의식이 신체와 지능의 주인이 되어 개인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한다(Winnicott 1986). 따라서 아동의 자아의식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는 태도가 다르다. 아직 12개월 영아 수준의 약하고 미성숙한 자아의식인 경우에는 아무리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인지기능을 갖추어도 혼동스러우며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고 매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성숙은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유도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를 더욱 필요로 한다(Winnicott 19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되고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비구조적 발달 미술치료(Williams, 1976)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발달장애아의 자아의식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나'라는 1인칭 대명사도 아직 출현하지 않은 0세~3세 단계의 자아의식은 너무도 미약하여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자아의식은 자신의 감각이나 충동을 생생하게 느끼고 대상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있다는 Winnicott(1971)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발성과 자기욕구표현능력, 주변세계에 대한 의미 있는 탐색행동 등 관찰될 수 있는 행동과 언어적인 면에서 자아의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비구조적 발달미술치료 과정에서 초기단계의 자아의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자발성, 자기욕구표현능력, 주변세계에 대한 의미 있는 탐색행동의 변화는 어떠한가?
- 2) 치료 과정 중에 나타난 표현활동과 자아의식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의식의 발달

심리학 용어에는 자아(ego)와 자기(self)라는 것이 있다. 자아와 자기에 대해 엄격한 구분을 시도한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는 동기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서 주체적인 뜻을 담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는 자아의 대상으로서 자기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객체적인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 점차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경우 자아와 자기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서로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한 경우도 있다(박아청 2001). 본 연구자도 자아와 자기를 같은 의미로 보고 혼용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말을 못하는 영유아에게도 자아의식이 존재하는지 이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Amsterdam(1972)은 3개월에서 24개월 된 영유아 88명을 피험자로 유아의 코에 입술연지를 바르고 거울에 비추면서 '저게 누구지?'하는 말에 영유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18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18~20개월의 유아인 경우에는 42%, 21~24개월의 유아는 63%가 자신을 가르키는 자기인지를 보였다.

한편 Mahler(1975)는 특별히 영유아와 엄마간의 행동을 3년 동안 자연스럽게 관찰기록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의 자아는 2개월부터 욕구충족대상에 대한 희미한 의식이 정상적 공생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는데 이 단계에서 유아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마치 하나의 전능체계(하나의 공통된 경계내의 이중적 단일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기능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몸 전체의 접촉이 공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내부의 창조로부터 느껴지는 자극에 대한 집중에서 감각 지각적 집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아의 핵심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감각 지각적 기관은 자기를 대상세계로부터 구분하는데 주로 기여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생단계를 거쳐 분리단계에 이르면 유

아가 운동기관의 성숙을 통해 어머니 품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탐색하면서 세계와 자신의 전능함과 위대함에 매혹되어 자아기관들의 연습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융합으로부터 탈출한다. 그러나 17개월 이후 유아의 인지능력이 증대되고 정서가 점차 분화되면서 이전처럼 좌절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게 되면 다시 엄마에게 재접근하며 분리불안이 증가된다. 이때 유아는 기분의 빠른 변화, 일반적인 불만족, 어머니를 밀어내고 다시 매달리는 급변하는 욕구가 특징인데 이 시기 유아의 자율적 자아가 최상의 기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정서적 유용성이 필수이다. 21개월 이후 유아의 재접근하려는 시도가 줄어들면서 간혹 1인칭대명사 '나'를 사용하고 사물을 명령하는 능력이 눈에 띄이며 상징적 놀이를 하는 등 중요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부터 유아들은 특정 단계의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독특하며 유아들마다 달랐다는 것이다. 즉 이 때부터 유아의 개인성이 생기기 시작하며 고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Winnicott(1981)는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이 시기 유아의 자아발달을 연구하였는데 초기유아의 미성숙한 자아는 충분히 좋은 엄마가 제공하는 '자아지원'에 의해 강화되어 평온하고 긴장이 풀린 통합되지 않은 상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상태의 경험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유아의 욕구나 감각충동에 대해 좋은 엄마의 적용해 주는 행동은 유아에게 욕구 충족을 줄 것이고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는 경험으로 변한다. 여기서부터 세상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믿음이 자란다. 따라서 Winnicott(1986)는 환경에 의해 주도된 행동이 아니라 유아에 의해 주도된 행동을 항상 강조한다. 이후 유아는 절대적 의존기에서 벗어나 '나'는 '나'와 분리되고 객관성을 성취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유아의 욕구에 엄마가 마술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좌절에 경험을 통하여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 경험을 하면서 유아는 정서적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여 자기의 욕구에 현실을 동화시키는 놀이를 시

작하게 된다. 이런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통하여 창조성과 의사소통의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Winnicott 1971). 이때 창조성은 내가 삶을 살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느끼고 외적세계와 관계 맺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인간이 외면세계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로 연구한 것이다. 그러나 Jung학파연구자들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집단무의식에서부터 의식의 분화 발달과정을 종교, 신화, 문화상징 등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Neumann(1970)은 개체의 발달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생물학적 발달 과정이 정신의 발달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개인의 자아의식의 발달은 인류의 삶 안에서 의식의 진화를 결정해온 원형적 단계를 반복하여 거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단계는 전 자아단계(pre\_ego)로서 우로보로스(꼬리를 물고있는 원초적 뱀)에 의해 상징화될 수 있다. 즉 자아와 무의식, 인간과 세계가 아직 미분화되어 신비적 관계를 이루면서 상반된 두 힘이 서로 공존하며 가장 온전한 전체성을 유지하는 시기로 자아의 태내기로 생각할 수 있다 (Neumann 1963).

이러한 자아의식은 식물이 땅에 의지하듯 수동적으로 완전히 무의식에 의존되어 있다가, 동물이 본능적 욕구에 반응하여 움직이듯 서서히 부분적 능동성을 획득하여 점차 자신의 '몸'에 연결되어 진다. 자아의식이 "몸"의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은 Winnicott(1981)도 몸과 정신의 통전 문제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인데 자아는 몸을 통해 경험을 조직화하면서 더욱 확고한 자아의식을 발달시켜 가게 된다. 이후 자아는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의 세계로 진입하는 시기가 되고 인간의 의식이 나와 너, 나와 사물을 확연히 구분하는 때가 된다 (Neumann 1970).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자아의식의 발달 과정도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져서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 특히 대상관계 이론과 융학파 견해는 매우 큰 간격이 있다. 그러나 자아의식의 성숙의 압력, 즉 개별화를 향한 욕구는 타고난 것이고 강력하게 주어진 본능적 생명력이란 것은 다르지 않다. Jung

학파의 경우는 자아의식이 집단무의식과의 분화과정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발달의 근원적 힘이 이미 의식의 영역밖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대상관계 이론의 경우 Mahler(1986)는 유아가 기고, 서고하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경험을 계속 하려 했고 매우 조용하고 태평스러웠던 유아가 갑자기 무엇인가에 크게 강요받은 것 같았다고 서술하면서 여기서 개별화를 향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강력한 추진력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Winnicott(1971)도 원본능 경험과 관계된 자아의식을 '참자기'라고 칭하고 인간은 참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몸과 지식(지능)을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유아의 '자발성'은 생명본능과 연결된 중요한 열쇠이고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2. 비구조적 발달미술치료

발달미술치료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발달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이론, 대상관계이론, 피아제의 인지이론 등을 기초로 하였고 미술에 있어 정상아동의 표현발달을 연구한 여러 이론들도 포함하였다(Williams 1976, Kramer 1971).

이런 이유로 발달미술치료는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미술교육과 흡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술교육은 인격적 성장과 미적성장을 모두 그 목표로 하여 동등하게 비중을 두는데 반해 미술치료는 인격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미술의 미적요소나 제작기술의 습득과 같은 미적성장은 치료목표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Uhlin, Chiara 1972).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체된 내담자들은 개인적으로 손상된 부분의 발달수준이 모두 다르고, 성격적인 측면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적합한 치료적 접근을 위해서 신중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평가방법은 물, 흙 등이 포함된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는데 대개 처음에는 비지시적으로 내담자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하고 후반에는 특정 재료를 제시하고 놀이하도록 유도하는 지시적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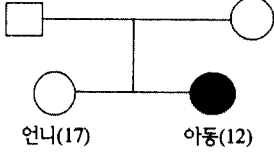
가가 이루어진다(Williams 1976).

이 평가에서 소근육, 근육협응 등의 기술수준과 재료의 조합능력 등을 통해 내담자의 인지, 운동능력도 측정되지만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위한 감정표현능력도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또한 내담자가 선호하는 재료, 감각양식(시각, 청각, 후각 등)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는 구조적이고 지시적인 미술치료를 실시할 때에 내담자의 주의를 끌고 흥미 있는 자극을 제공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평가는 지시적 방법과 비지시적 방법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담자의 자아의식 수준과 인지 운동 능력이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발달하여 전반적인 치료교육이 적합한 경우에는 인지, 정서, 운동능력을 고려한 구조화된 지시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담자의 자아의식 수준이 다른 인지, 운동능력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질 때에는 비구조적 미술치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Williams 1976). 자아의식은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외부에서 유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능적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내담자의 자기주도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다.

평가 이후 본격적인 치료과정에 들어가면 비구조적 미술치료는 물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담자가 아직 일반적인 미술재료(크레파스, 물감 등)를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 모래, 실, 밀가루와 같은 전 미술재료의 사용이 많다. 따라서 물과 모래의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엄마 자궁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포근한 작은 공간 여러 가지 질감의 천과 실, 돌 조개껍질 등의 다양한 자연물,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의 촉각적 경험을 위한 재료와 많지 않은 색을 구비한 크레파스 물감 마카펜 등의 그리기 도구, 찰흙 색찰흙 등의 고형질 재료가 필요하다(Sussman 1976).

미술치료시간은 40~50분으로 이루어지고, 10~20분 정도의 부모상담은 꼭 필요하다. 부모에게 그 날 치료시 나타난 내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표 1> 초기면접을 통해 수집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

<p>가족구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부(45 대학원졸)                      (41 대졸)</p>  <p>언니(17)                                      아동(12)</p> </div> <p>                 父 : 공학박사로 이성적이지만 가족에게 매우 자상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母 : 합리적이며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고 자녀교육문제에 특히 열의가 높다.                  언니 : 이성적이고 단정하며 학습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아동과 관계는 좋은 편이나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다.             </p>														
<p>생육사</p>	<table border="1"> <tr> <td>출생전</td> <td>* 원하던 임신이 아니었고 모가 유학중이라 몹시 힘들었다.</td> </tr> <tr> <td>출생시</td> <td>* 제왕절개, 신생아체중 4kg</td> </tr> <tr> <td>출생후</td> <td>* 만 1.5세 때 임파선 수술을 마취 없이 2차례에 걸쳐서 받고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불안증세가 생겼다.</td> </tr> <tr> <td>신체발달 신변처리</td> <td>* 전반적 신체발달은 정상 이었다. * 신변처리능력도 3세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였다.</td> </tr> <tr> <td>언어발달</td> <td>* 2세까지는 정상적이었으나 그 이후 수용언어는 5~6세 수준, 표현 언어는 2~3세 수준이다. * 반향어를 잘 사용한다.</td> </tr> <tr> <td>인지발달</td> <td>*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워 측정하기 어려우나 정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td> </tr> <tr> <td>사회정서 발달</td> <td>*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질문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따른다. * 주변상황을 두려워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실, 교무실 다른 교실들은 배회하고 수업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td> </tr> </table>	출생전	* 원하던 임신이 아니었고 모가 유학중이라 몹시 힘들었다.	출생시	* 제왕절개, 신생아체중 4kg	출생후	* 만 1.5세 때 임파선 수술을 마취 없이 2차례에 걸쳐서 받고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불안증세가 생겼다.	신체발달 신변처리	* 전반적 신체발달은 정상 이었다. * 신변처리능력도 3세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였다.	언어발달	* 2세까지는 정상적이었으나 그 이후 수용언어는 5~6세 수준, 표현 언어는 2~3세 수준이다. * 반향어를 잘 사용한다.	인지발달	*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워 측정하기 어려우나 정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사회정서 발달	*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질문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따른다. * 주변상황을 두려워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실, 교무실 다른 교실들은 배회하고 수업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출생전	* 원하던 임신이 아니었고 모가 유학중이라 몹시 힘들었다.														
출생시	* 제왕절개, 신생아체중 4kg														
출생후	* 만 1.5세 때 임파선 수술을 마취 없이 2차례에 걸쳐서 받고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불안증세가 생겼다.														
신체발달 신변처리	* 전반적 신체발달은 정상 이었다. * 신변처리능력도 3세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였다.														
언어발달	* 2세까지는 정상적이었으나 그 이후 수용언어는 5~6세 수준, 표현 언어는 2~3세 수준이다. * 반향어를 잘 사용한다.														
인지발달	*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워 측정하기 어려우나 정상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사회정서 발달	*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질문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따른다. * 주변상황을 두려워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실, 교무실 다른 교실들은 배회하고 수업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p>교육경력</p>	<p>* 5세 이후 10세까지 5년동안 특수교육을 여러 기관을 통하여 받았다.(일반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받았다.) * 현재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다.</p>														
<p>가정환경</p>	<p>* 임파선염 수술시 모가 학업중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보살핌을 하지 못했다 이후 아동의 발달에 문제가 보이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자녀양육에만 힘썼다.</p>														
<p>부모 양육방식</p>	<p>* 부모 모두 아동을 몹시 사랑하면서도 아동의 문제를 받아 들이기 어려웠다. 아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교육적인 면에 특히 관심을 두고 양육하였다. * 부모 모두 틀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동의 생활이 바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냥 텅골고 노는 것을 몹시 싫어 했다.</p>														
<p>주 호소내용</p>	<p>* 언어 발달이 늦고 학습을 시켜도 별 변화가 없다. * 정서가 불안정하며 사회성이 떨어지고 특히 자폐적인 증상이 보인다.</p>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함께 지내는 동안 생긴 일들 중에 내담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서로 나누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상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Rubin 1978).

그러나 비구조적 미술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자의 역할이다. 우선 치료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언어 이전의 내담자들

은 의식이 잘 분화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상태가 더 지배적이다. 다음으로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은 민감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내담자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얼굴표정, 몸짓, 의성어를 통해 최대한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Williams 1976).

비구조적 발달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재료를

선택하고 놀지만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를 내담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거나 간혹 치료자가 잠깐 놀이 시범을 보이는 하는데 이 경우 내담자는 자신의 욕구와 맞으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욕구와 맞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다. 이 때 치료자가 관심 끌기 위한 행동을 계속 해서는 곤란하다.

이상과 같이 비구조적 발달미술치료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치료환경 속에서 내담자의 자기 주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치료이다. 따라서 치료자의 수용능력과 기다려주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진정한 수용과 기다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그 의미와 동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치료대상은 유사자폐, 발달장애 등 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단을 받은 12세 여아로 1999년 6월에서 2002년 8월 현재까지 3년 2개월 간 총 134회의 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 2. 평가도구

##### 1) 발달 미술 치료적 평가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능력, 운동조절 및 협응

<표 2> 미술, 놀이평가 및 심리검사결과

평가도구		아동의 전반적인 태도 및 결과
놀이 및 미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맞춤을 겨우 하고 피부접촉을 즐기며 사람을 기피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의 욕구는 없었고 큰 소리로 혼자 웃고 "골풀"등의 의미 없는 몇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며 혼자 즐겼다.</li> <li>* 그림도 화지를 보면 기계적으로 원, 세모, 포도, 사과 등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과거에 배운 학습된 그림을 의미 없이 그렸다.</li> <li>* 소근육 조절은 매우 뛰어나 지시가 있으면 바느질도하고 찰흙으로 매끈한 그릇도 만들었다. 그러나 지시가 없으면 찰흙을 두드리고 주무르는 행동만 반복했다.</li> </ul>
벤더 게스탈트 검사(B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시지각-협응능력은 6.5세-7세로 지체되어있다.</li> <li>* 도형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왜곡, 중첩이 많으며 크기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보아 자아통제의 결여, 충동성 경향이 있다.</li> <li>* 3번과 7번, 6번과 8번 도형이 중첩되어 자아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미소신경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li> </ul>
인지 평가	인물화 지능평가	대도시 기준으로 하면 IQ 50으로 '중등도 훈련가능 지적결손' 수준이고 전국 기준으로 하면, IQ 58로 '경도 교육가능 지적 결손'수준이다.
집, 나무, 사람 검사 (HTP)	내용적 분석	<p>집 : 집을 그림책에 있는 도식적인 집 모양을 테두리로 하여 그리고 창문이나 문 없이 그냥 전체를 연필로 색칠하였다. 특수교육의 그리기 훈련의 영향을 받아 정서적으로 느낌 없이 개념적인 집을 그렸고 늘 교육받던 대로 색을 칠했다. 매우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를 보여주었다.</p> <p>나무 : 왼쪽에 치우쳐 화지 반을 나무기둥으로 채우고 동그랗게 나무 위 부분을 그렸다. 역시 연필로 색칠했다.</p> <p>아직 현실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매우 유아적인 상태를 나타냈고 나무 형태가 뿔뿔이 뿜어내는 듯한 형태로 충동적인 경향이 보여 졌다.</p> <p>사람 : 남녀 모두 같은 치마 입을 모습을 그렸고, 눈 코 입 없이 전체를 연필로 색칠했다.</p> <p>몸 전체의 균형이 없고 도식적인 그림을 그렸다. 전체 균형적인 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목구비 면에서 현실적응이 어려워 보였다.</p>
	형식적 분석	전반적으로 선이 거칠고 구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안한 경향을 보이고 모든 그림에 색을 칠하는 태도로 강박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검사과정 아동의 전반적인 태도		<p>검사하는 동안 '엄마'를 부르고 밖으로 나가려는 불안한 모습이 었다.</p> <p>검사자의 눈치를 살피고 질문에 대한 검사자의 말을 따라하는 '반향어'를 썼다.</p>

<표 3> 절차 및 내용

단 계	내 용
초기단계 (평가, 신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밀한 관찰평가를 통해 아동의 현재상태를 이해한다.</li> <li>*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한다.</li> <li>* 눈을 자주 마주치고 편안하게 웃어준다.</li> <li>* 나직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아동의 행동과 감정을 반영한다.</li> </ul>
중기단계 (탐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된 상황에서 자율성 회복</li> <li>* 몸을 자각하기 위한 탐구</li> <li>*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탐구</li> </ul>
후기단계 (형태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발적 미술놀이를 통한 자기표현</li> <li>* 미술놀이를 통한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향상</li> </ul>

능력, 자기표현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술 재료를 통한 놀이평가를 실시하였다.

히 떨어져 미술치료를 의뢰받았다. 00이에 대한 미술치료는 주1회 45분으로 하였다.

2) 심리검사

언어 학습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지상태 및 심리상태를 좀 더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능검사(KEDI-WISC), 발달평가, 벤더게스탈트검사(BGT), 집-나무-사람 그림검사(HTP)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K-CBCL)을 실시한 결과 위축(100%) 사회미성숙(100%) 사고의 문제(100%) 주의집중(98%)로 어머니를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였다. 실시검사 중 지능검사는 아동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했고 발달평가 및 심리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초기단계 (평가 및 신뢰단계)

처음 00이는 낮선 놀이실에서 두리번거리며 이것저것 만져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색깔의 크레파스를 만지면서 색이름을 연속해서 말했다. "보라색, 빨간색,……" 그리고 나서 나를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00이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인 파랑색 크레파스를 00이 옷 가까이 가져다대면서 "응 파랑색"하고 색과 아동을 연결시키며 말했다. 그 때부터 00이는 색이름을 하나씩 말하고 나를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아동은 색이름을 통해 나와 관계를 시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놀이실에서 자신과 나의 관계가 학습 환경에서 교사와의 관계로 느끼는 것 같았고, 끊임없이 내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나는 00이에게 "이 곳에서는 네 마음대로 놀 수 있어"라는 의미를 언어로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00이가 하는 행동을 편안히 지켜보며 있었다.

3. 비구조적 발달 미술치료의 절차

본 연구의 중심인 비구조적 발달 미술치료는 1999년 6월에서 2002년 8월 현재까지 3년 2개월간 총 134회를 주 1회 45분씩<표 3>과 같이 이루어졌다.

2~3회기까지도 특정한 놀이를 하기보다 크레파스를 만지며 색깔이름을 말하고 이것 저것 놀이감을 건드리며 다녔지만 훨씬 긴장이 풀어졌고 가끔 바닥에 눕기도 했다. 그리고 "골똥, 골똥"하며 혼자 웃고 즐겼다. 이런 행동은 00이가 집에서 혼자 놀 때 하는 것으로 엄마는 그 모습이 제일 보기가 거북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행동을 못하게 했고, 비디오라도 억지로 보도록 시켰다. 나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00이 자아의식수준에서 가장 편안한 놀이로 생각했다. 그래

IV. 비구조적 발달미술치료 사례

1. 비구조적 발달 미술치료 진행과정

00이는 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성이 현격

서 방해하기보다 "골풀?"하고 말하며 옆에 앉아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골풀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마음 놓고 그 놀이를 해도 된다는 의미였다. 00이는 나를 바라보며 내 몸을 만지다가 다시 "골풀"하며 혼자 웃는 놀이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마치 아기가 엄마 한 번 바라보고 혼자 웃다가 다시 엄마 바라보고 웃고 하는 모습처럼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다. 골풀이란 말은 아동에게 자신을 즐겁게 자극하는 소리로 생각되었다. 그 소리를 말하고 들으며 스스로를 자극하고 즐기는데, 1-2세 정도의 정상 유아들도 잠시 보이는 행동이지만 00이와 같은 아동에게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달장애나 자폐아동들에게 이러한 "자기 자극어"는 흔히 발견되는데, 이런 말을 통해 이들은 자신을 자극하고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를 의식하고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극어는 사라진다. 따라서 억지로 못하게 하기보다 자신을 느낄 수 있는 바람직한 놀이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거된다.

## 2) 중기단계 (탐색단계)

### ① 물과 모래

00이는 서서히 내 눈치를 살피지 않고 행동했는데 처음으로 완전히 몰입한 놀이는 모래놀이였다. 모래상자 안에 모래를 손끝으로 조금씩 만지다가 손에 묻히기 싫은 듯 삼을 가지고 모래가 손에 최대한 묻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거의 40분을 "골풀" 한 번 말하지 않고 집중해서 놀았다.

나는 매 회 모래와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콩, 나무젓가락 등을 옆에 준비해 두었지만 아동은 관심 없어 할 뿐 아니라 완강하게 "치워"하고 내게 말했다. 모래를 이리저리 옮기다가 서서히 손에 묻는 것이 익숙해지자 삼을 버리고 직접 손으로 놀기 시작했다. 그 시기에 난 큰 대야에 물을 떠서 옆에 두었다. 00이는 모래를 대야에 모두 담고 물과 모래를 섞으며 정말 즐거워했다. 나는 아동의 놀이를 바라보며 행동을 언어로 반영해 주었을 뿐 함께 놀이하지는 않았다. 00이는 지금 어떤 대상을 느끼고 관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00이 자신을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

고 생각했다. 모래와 물을 만지면서 '모래'와 '물'이란 대상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모래와 물을 통해 아동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이 먼저이다. 아이들은 몸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면서 '나'를 느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물고 빨고 하며 가지고 논다. 많은 장애 아동들은 손을 흔들고, 혀를 굴리고, 머리를 흔드는 등의 상동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극한다. 이런 신체적 자극을 통해 일차적으로 그 느낌을 느끼면서 무료함을, 때로는 분노를 달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몸'을, '나'를 느끼는 것일 수 있다. 00이는 뚜렷한 상동행동은 없었지만 상동행동을 하는 다른 아이들의 미술치료 경험에서 상동행동을 치료자가 억지로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거나, 소거하려고 하지 않아도 촉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몸의 경험을 통해 '나'를 느끼면서 조금씩 자아의식이 형성되면 그 때 이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외부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함께 인식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00이가 온전히 자신의 몸을 모래와 물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그 신성한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자신의 몸을 느끼고 즐길 때의 아동의 놀이와 '모래와 물'이란 외부세계를 체험할 때의 00이 놀이는 비슷하지만 구분 될 수 있다. '몸'을 느낄 때의 놀이는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반면 물과 모래에 관심을 두고 놀 때에는 동작이 훨씬 섬세하고 다양해진다. 예를 들어 물과 모래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두드리고 휘젓는 동작을 할 때에는 물과 모래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자체에 더 에너지를 쏟고, 물과 모래에 관심을 둘 때에는 그것을 드러다 보며 찌르고 퍼올리고 주무른다. 물론 초기에 모래놀이가 주로 휘젓기와 두드리기였다면 회기가 갈수록 다양하고 섬세한 행동이 많아진다. 이것을 단순히 소근육 운동의 발달이나 눈과 손의 협응력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00이는 이미 바느질까지 할 수 있는 섬세한 협응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휘젓기와



두드리기는 다양한 속도와 형태로 변화하면서 후 기에도 계속된다.

물과 모래놀이를 계속할 때에도 항상 다른 재료를 예를 들어 밀가루, 옥수수가루, 핑거페인트 등의 재료는 00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00이는 항상 물과 모래를 선택하고 다른 재료는 치우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했다. 왜일까? 먼저 익숙한 것만을 하고자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자폐적 성향'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자는 00이의 거부를 '자기의사표현'의 하나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거부를 '자폐적 성향'으로 보면 소거해야하는 행동으로서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지만 '자기표현'으로 보면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성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기에는 부정적인 행동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서 꼭 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다.

또한 물과 모래를 좋아하는 것은 00이만의 특별한 성향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물과 모래놀이를 다른 어떤 놀이보다도 좋아한다는 것이다. 모래는 흙을 대변하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물과 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인류 창조신화에서 가장 먼저 창조되어진 것이며 모든 물질의 기본 원소이기도 하다. 외부세계의 기본적 질료는 인간정신의 기본적 질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외부세계의 자연은 인간 무의식에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비개인적, 초개인적인 정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무의식에 상응할 수 있다. 인간이 동물, 식물, 광물에 투사하여 주객의 동일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집단무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유경 2001). 아이들은 이러한 집단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분화되는 초기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식보다는 집단무의식의 특성들이 더 지배적이다(이유경 2000). 그래서 아이들과 자연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고 그들이 놀이실에서 즐겨 선택하고 놀이하는 재료가 물과 모래일 수 있다. 무엇보다 물은 자연적 재료 중 가장 아이들에게 친숙할 수 있는데 태내기 동안 이미 친숙해진 재료이기에 이것을 만지고 느끼면서 안정감과 즐거움과 호기심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00이는 자신

의 몸을 통해 물과 모래를 느끼면서 외부세계를 처음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00이는 모래와 물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며 놀았는데 그 중 가장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한 동작은 모래성을 쌓고 부수는 것처럼 모래를 천천히 높이 쌓고 부수고 다시 쌓고 부수는 동작이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놀이행동은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혼돈의 바다와 같은 무의식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식분화과정의 한 몸부림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고기능 자폐아동이 자기 주도적인 놀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아의식이 뚜렷해지고 자기욕구가 확실해지면서 "나"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순서적인 반복적 나열 놀이를 그만두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연구자는 00이의 모래 쌓고 부수는 놀이를 인위적으로 다른 놀이로 유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새로운 몇 개의 놀이재료를 예를 들어 막대기, 그릇, 공 등을 가지고 옆에서 00이 놀이를 방해하지 않으며 잠시 놀이 시범을 보였는데 00이는 잠시 쳐다보다가 다시 자신의 놀이를 했고 그 새로운 놀이감들을 자신의 모래상자에서 치워주기를 바랬다.

## ② 여러 가지 재료

한 동안 자신의 모래놀이에 완전히 몰입하던 00이가 드디어 풀그립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물과 모래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색의 물감과 손가락풀놀이를 시작했고 옥수수전분, 밀가루, 감자전분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놀기 시작했다.

00이는 미끈거리고 촉촉한 재료의 촉각적 즐거움도 느끼고 놀았지만 빨강, 노랑, 파란색을 따로 써보고 두 색을 섞어보고 나중에는 모든 색을 섞어보는 놀이를 가장 즐겼다. 주재료인 손가락풀이 밀가루로, 옥수수가루로 계속 바뀌어가도 그것에 물감을 섞어서 혼합하며 놀았는데 재료를 탐색하고 즐기는 태도가 진지했다.

순서대로 배열하고 서로 섞어 보는 놀이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 놀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콩과 쌀 등

의 곡식을 따로 담았다가 섞기도 하고, 색모래를 섞고, 자동차를 배열하고 뒤섞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동물인형들을 각각의 상자에 넣었다가 커다란 상자에 한꺼번에 쏟아 넣는 등 재료에 따라 약간의 놀이 행동은 달라도 이들이 즐기는 놀이 형태는 분류하고 혼합하는 놀이이다. 이는 미분화된 혼돈 상태의 무의식에서 의식의 질서를 부여하고 다시 혼돈의 상태로 그리고 다시 질서의 상태로 거듭 반복하는 놀이를 하면서 그들은 혼돈상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질서의 세계를 맞이하며 의식의 힘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3) 후기단계 (형태화단계)

#### ① 찰흙놀이

00이는 '찰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00이는 '꿀풀'과 같은 '자기 자국어'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놀이실에서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표현하며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예전과 같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는 등 주변 환경에 안정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00이는 찰흙을 가지고 치료자가 지시하면 예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나 나는 자발적인 활동에 비중을 두었으므로 역시 어떤 유도나 지시도 하지 않았다. 00이는 처음에 찰흙을 등글게 뭉친 후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중심으로부터 펼쳐가면서 둥근 원을 만들었다가 다시 등글게 뭉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나는 "꽃이 폈네, 꽃이 지네"하며 00이의 행동을 언어로 반영했고 몇 가지 부재료를 잘 보이는 곳에 제시했으나 00이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찰흙 만들기에 완전히 몰입하였다.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은 꽃, 모자, 조개 만두 등의 형태로 조금씩 달라졌으나 중심으로 뭉쳤다가 중심으로부터 펼쳐나가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계속 되었다. 그리고 00이는 자신이 만드는 형태가 실재 어떤 사물(꽃, 만두, 조개)과 연결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손이 만들어 가는 찰흙의 여러 형태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정상아동들의 난화기에서 아동이 팔과 손의 근육운동과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혼적과의 인과관계를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난화를 그려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느껴

졌다. 자신의 손동작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형태에 어떤 연관을 느끼고 그 자체에 완전히 몰입하였다. 00이가 만들어낸 둥근 형태도 이 단계에서 의미 있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마치 아동들이 수많은 실타래 같은 난화를 그리면서 '원'을 향해 나아가는 현상과 비교될 수 있었는데 아동의 난화기는 '원'을 완성하는 것을 끝으로 다음 단계인 외부세계의 사물표현으로 변화된다. 즉 일단 원이 완성되면 그것으로부터 사람, 해, 동물 등의 표현으로 발전되어가 원을 분기점으로 추상적 형태에서 구상적 형태로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난화단계에 있는 모든 아동들은 민족과 국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같은 표현을 하는데 집단무의식의 영향아래 낮은 의식성을 가진 아동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내적 질서를 확립하면서 의식의 분화를 이루어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인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집단무의식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일단 '원'이 완성되면 각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특징을 가진 구별된 제 각각의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원'의 형성 전후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 여겨진다(Kellog 1969).

00이는 바로 이 시기에 위치하여 자신의 손동작과 찰흙의 형태를 연결시켜나갔는데 00이가 그림을 그리기보다 찰흙을 선택한 것은 그림은 그녀에게 너무나 인위적으로 학습된 부분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그리며 놀기에는 그 자율성을 잃어버린 영역이었던 것 같다. 부모와 교사들의 반강제적인 유도와 지시에 의해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린 그림 그리기는 지시만하면 10세 수준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미 놀이가 아니기에 이후에도 그리기는 00이가 한번도 그녀의 놀이에 자발적으로 선택된 적이 없다. 그러나 찰흙은 예외의 영역으로 그녀에게 자유로운 놀이가 가능했다. 찰흙놀이는 둥근 형태에서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길쭉한 막대모양에서 세 개의 가지가 달린 정삼각형 형태를 반복하여 만들었다. 그 이후부터 서서히 여러 가지 형태가 매회기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 공룡, 사슴, 코뿔소 등(연구자가 보기에) 유연한 곡선과 반듯한 직선이 어우러진 여러 모양이 새롭게 만들어 졌지만 역시 사물과 연결

시켜지지는 않았다. 정상아동의 난화발달단계에서 원은 전체 균형의 완성으로서 시작과 끝이 연결되고 상하좌우의 균형이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업이지만 찰흙에서 00이가 처음에 만든 둥근 원은 난화에서의 원과는 다른 맥락으로 느껴졌다. 찰흙의 특성상 손으로 뭉쳤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형태가 둥근 형태이고 그 둥근 형태에서 균형잡기를 시도한 과정이 꽃(중심원), 만두, 조개(원을 정확히 반으로 집어 만든 것) 등의 형태로 나타난 것 같다. 이는 일반 아동들이 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무수한 시도를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00이에게는 균형 잡힌 세모형태가 그림의 '원'과 비교될 수 있는 찰흙의 형태로 느껴졌다. 이 형태가 나타난 후 00이는 코일링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여러 모양을 만들었으며 유연한 곡선과 반듯한 직선이 잘 어우러진 조형물을 만들었다. 이 형태들은 00이의 기억에 의해 몇 번 반복되어 똑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하기도 했다. 이 작업을 할 때 치료자는 "이건 뭐예요?"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사슴 같다."하고 치료자 나름대로 명명해 보기도 하였으나 치료실에서는 00이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만든 찰흙형태에서 사물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집에서는 혼자 찰흙 만들기를 하여 엄마에게 "차돌이에요(개이름)"하고 사물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한 주 동안 집에서 있었던 생각나는 일을 내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언니 때렸어" "롤라 타다 넘어 졌어" "아팠어" "아빠 노래 했어" 등 인상 깊었던 일을 내게 얘기했고 나를 보며 "선생님 화장 했어" "선생님 염색 했어" 하며 조금씩 주변세계를 의미 있게 경험하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마다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시도했는데 교감선생님께서는 "박치기해" 담임선생님에게는 "예쁘게 말해"하고 다른 말을 하며 접근했고 집에 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슬프고 기뻐했던 일을 엄마에게 이런 간단한 언어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학교시험시간에도 예전에는 전혀 시험을 보지 않았으나 이 시기에 와서는 다들린 답이라도 끝까지 앉아서 답안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학습시간의 집중시간도 길어지고 태도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무엇인가를 알고 보는 것 같은 의미

있는 눈빛을 지니게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아직 "나"란 1인칭대명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시기부터 부모님께 생활 속에서 00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했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마실 때도 주스, 우유, 물중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스스로 선택해서 입도록 하여 가정에서 최대한 00이의 주도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물감놀이

이 후 찰흙놀이에서 물감과 지점토, 흰거 페인트를 사용하는 놀이로 변화되었다. 이 전에 물감놀이는 여러 색을 섞으면서 즐기고 놀았지만 이 시기 놀이는 여러 색을 그냥 섞기 보다 색 자체에 관심을 보이며 빨강색, 파란색, 노랑색, 흰색을 사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하늘색, 주황색, 살색을 만들었고 흰색의 농도를 조절하여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색을 창조해냈다. 그것에 지점토를 섞어 촉각적 즐거움도 느꼈지만 여러 형태를 만들고 그리면서 즐겼다. 00이는 주황색을 특히 좋아했고 하늘색을 만들면서는 GOD의 "하늘색 풍선"을 노래했다. 특히 그 노래는 녹음기를 사용해 수없이 반복해 들으며 춤도 추웠을 만큼 00이가 좋아하는 노래이다.

이후 드디어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는 시기가 왔다. 지금까지 "00이 꺼야" 라고 자신에 대해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내꺼야"라고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서히 가끔 찾아오는 학교친구의 놀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모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연구자의 놀이에는 관심은 주지만 모방을 하지는 않았다. 집에서는 지금까지 TV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이때부터 TV를 유심히 보며 "엄마 △△가 나왔어요"하고 주변세계에 보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물감놀이를 하면서 옆에 제시되어 있는 휴지, 지점토, 모래 등의 부재료들을 섞어서 놀기 시작했다.

## 2. 비구조적 발달미술치료의 진행과정의 변화

본 연구는 인지, 운동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3. 사전 사후 심리검사결과를 통해본 변화내용

		사전검사	사후검사
검사일		1999년 4월 23일	2002년 6월 13일
검사기관		인간발달복지연구소	한양대학교병원
검사 종류	인지 검사	BGT와 인올화 지능검사를 통해 IQ 50정도의 '중등도 훈련 가능 지적 결손'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 KWIS검사 실패	BGT검사에서의 모사결과를 볼 때 IQ 90정도로 보통수준의 하단에서 기능 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 KWIS검사 실패
	정서 검사	HTP검사 결과 불안과 강박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되었다.	DAP검사 결과 과잉행동, 강박적 경향 등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격히 차이가 나는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비구조적 발달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자아의식 발달초기에 가장 중요한 침범하지 않는 안정되고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와 '몸'을 느낄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하여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변화과정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표 4>, <표 5>와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총 134회의 비구조적 발달 미술치료를 실시한 사례이다. 아동은 인지, 운동기능과

<표 4> 초기단계의 자아의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자발성, 욕구표현능력, 주변에 대한 태도의 변화

회기		행동적 변화	언어적 변화
초기	1~11회	* 연구자의 눈치를 심하게 살폈다. * 앉아서 두리번거리거나 손톱을 물어 뜯었다. * 매우 수동적으로 연구자의 유도를 기다렸다.	* '굴뚝' 등의 자기자극어와 방향어를 심하게 사용하였다. * 혼자서 갑자기 큰소리로 웃었다. * 질문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중기	12~76회	* 치료실 놀이감 등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 또래친구의 행동에 별로 반응이 없었다.	* 자기자극어가 없어지고 "밀가루쥐"등의 간단한 욕구 표현어가 많아졌다. * 3인칭대명사인 자기이름으로 자신을 지칭했다.
후기	77~134회	* 선호하는 음악이 생겼다. * 연구자의 모습변화에 즉각적인 언어적 반응을 보였다. * 또래친구의 행동을 모방했다.	* 집에서 있었던 일을 "넘어졌어"등과 같이 간단한 말로 표현했다. * 질문에 간단하게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 1인칭대명사 "나"를 사용했다.

<표 5> 표현활동과 자아의식의 변화

회기	재료	표현활동	자아의식
1~11회 (초기)	크레파스	* 학습된 도형과 과일모양을 기계적으로 그렸다. * 크레파스 색 이름을 차례대로 명명하였다.	* 외부에 순응하여 전혀 자기표현이 나타나지 못했다.
12회~76회 (중기)	물, 모래,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	* 마른 모래를 도구를 사용해 손에 묻히지 않으며 만지면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놀이가 시작되었다. * 후반에는 모래, 물 등을 손으로 만지며 몸과 재료를 탐색했다.	* 안정되고 이완된 상태에서 자신의 몸과 대상을 느끼고 즐긴다. 특히 몸을 느끼는 행위가 대상을 느끼는 행위보다 선행한다.
77회~134회 (후기)	찰흙, 물감 지점토	* 찰흙을 만지면서 촉각적 느낌 보다 여러가지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즐겼다. * 형태 만들기에서 원중심잡기, 좌우대칭, 정삼각형 등의 정확한 균형잡기를 시도했다. * 균형잡기 후 사물과 흡사한 형태들이 만들어졌다.	* 내면의 질서 균형잡기를 통해 의식의 분화가 촉진되고 나와 대상, 내부와 외부세계의 구분이 확립되어갔다. *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놀이로 연결되었다.

비교해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만 2세 수준의 표현언어를 구사했고 대인관계 능력도 그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인지기능과 의사소통능력의 큰 간격을 자아의식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아의식을 위해 안정되고 신뢰로운 환경과 '몸'의 체험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비구조적 발달 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아동의 자아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치료중에 나타난 표현활동이 자아의식의 변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검사결과 사전검사에서 지능이 IQ 50수준이었는데 비해 사후검사에서는 IQ 90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사전검사에서는 불안 강박경향이 두드러졌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불안 강박 경향이 보고되지 않았다.

둘째, 초기단계의 자아의식으로 생각 될 수 있는 변화에서 (내담자의 자발성, 자기욕구표현능력, 주변세계에 대한 의미 있는 탐색행동) 언어적인 면으로는 '골풀' 등의 자기자극어가 없어지고 점차 욕구표현을 위한 간단한 언어가 많아졌다. 또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을 3인칭대명사에서 1인칭대명사인 '나'를 사용하여 표현했고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이 많아졌다. 행동적인 면에서는 연구자의 지시 없이는 그냥 앉아만 있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서서히 자발성을 보이며 주변을 탐색했고 점차 자기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갔다. 또한 처음에는 없었던 또래에 대한 모방행동이 나타났다.

셋째, 치료과정 중에 나타난 표현활동은 자아의식과 다음과 같은 관련을 지닌다. 모래, 물과 같은 자연재료에서부터 시작하여 옥수수가루와 같은 촉각적 유동성 재료를 거쳐 고품질 재료인 찰흙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해가는 재료변화 과정은 초기자아의식 형성에 가장 중요한 '몸'의 체험을 도와주는 중요한 작업 이었고 이 '몸'을 통해 다시 대상을 탐구해 갔다. 또한 형태에서 그 표현활동이 균형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완전한 균형을 잡은 후에는 다시 사물과 관련 있는 의미 있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과정은 자아가 무의식의 혼돈상태에서 점차 의식의 질서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매우 정교한 협응 능력을 지니고 모방표현능력은 10세 수

준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표현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0~3세 아동의 난화단계에서 볼 수 있는 형상화과정, 질서균형잡기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무척 인상적이다. 물론 이때에 소근육의 섬세한 동작은 그대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한 발달장애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 제한점이 있다.

첫째,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주변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아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도구가 없다.

둘째, 장애가 심하여 치료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종결시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0이를 연구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지닌 아동을 임상장면에서 빈번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발달장애아동의 연구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찰평가도구를 마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발달장애아동의 자아의식연구에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미술치료, 발달장애아, 자아의식

## 참고문헌

- 박아청(2001). 영유아의 '자아인식'의 발달연구에 관한 소고, 아동교육 제10권 2호 한국아동교육학회 197-214.
- 이만갑(1995). 자기와 자기인식(1)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34집, 203-267.
- 이유경(2000). 아동의 자아성장발달에서의 '집단무의식'의 역할 및 영향에 관하여, 원광아동상담센터회보, 14호 1-6.
- 이유경(2001). 세계의 창조신화, 창조신화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동방미디어, 289-346.
- Amsterdam, B. (1972) Mirror self-image reactions before age two. *Developmental Psychology*, 5, 297-305.

- Davis, M. Wallbridge, D. (1981). *Boundary & Space*, London,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Kellogg, L. (1970). *Analyzing Children's Art*, New York, Mayfield Publishing.
- Kramer, E. (1971). *Art as Therapy with Children*, New York, Shcocken Books.
- Lowenfeld, V. W., Brittain, L. (1982).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Macmillan Co.
- Mahler, M.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Neumann, E. (1963). *Great Mother*, London Boston, Routledg & Kegan Paul.
- Neumann, E. (1973).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J. A. (1978). *Child Art Therapy*, Van Nostranhold Reinhold Company, New York.
- Sussman, E. J. (1976). *Art Projects for the Mentally Retarded Child*, Thomas, Illinois.
- Uhlin, D. M., Chiara, E (1972). *Art for Exceptional Child*, WCB, Iowa.
- Williams, G. H., Wood, M. M. (1976). *Developmental Art Thrapy*,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Winnicott, D. W. (1971). *Playing & Reality*, London,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Winnicott, D. W. (1971). *Therapeutic Consultations in Child Psychiatry*, London,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Winnicott, D. W. (1986). *Essential Papers on Object Rel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08. 25 접수)